

#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시편 51편 - 2부

2023년 5월 28일 설교

크리스 식스 목사

우리는 "시편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설교 시리즈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시편 51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시편 전체를 읽을 것이지만 오늘 설교는 후반부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제 시편 51편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음악 감동을 위해.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1 하나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따라

주의 크신 긍휼하심을 따라

내 죄를 지워 주소서.

2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소서

내 죄에서 나를 깨끗케 하소서.

3 나는 내 죄를 알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4 당신께만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당신이 보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평결이 옳습니다

판단하실 때에 의로우시니이다

5 실로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으나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부터 죄인입니다.

6 그러나 당신은 모태에서부터 신실함을 원하셨습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 내게 지혜를 가르쳐 주셨나이다

7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하리이다

나를 씻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되리이다

8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주께서 짓밟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9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가리우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10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아니면 내게서 당신의 성령을 거두십시오.

- 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자원하는 영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 13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고  
 그리하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 14 하나님이며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 15 여호와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그러면 내 입이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 16 당신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 17 하나님이며 나의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부서지고 통회하는 마음  
 당신, 하느님,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 18 시온이 번성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
- 19 그 때에 주께서 의인의 제사를 기뻐하시며  
 온전하게 바치는 번제;  
 그러면 수소가 당신의 제단에 바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사야 40:8을 읽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 저와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시편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말씀을 당신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믿게 하소서.  
 우리의 유익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아멘.

지난 주에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의 간음과 살인의 죄에 대해 들었습니다.  
 다윗은 회개의 기도로 시편 51편을 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David는 또한 자신과 손상된 관계를 가졌습니다.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틀림없이 다시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David는 자신의 외부 행동이 바뀌려면 내부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화는 시편 51편의 후반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반부는 정당화에 관한 것이었다.  
 7-9절을 다시 읽은 후에 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7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되리이다

8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주께서 짓밟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9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가리우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 청의를 구합니다.

정당화는 법적 용어입니다.

당신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서 출두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부는 당신이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사가 당신이 "무죄"라고 선언하면 그는 당신이 무죄라는 법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당신은 정부의 눈에 정당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큰 죄를 범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다윗은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선언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와 수치를 씻어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슬초가 하나님의 용서와 보호의 표시로 피를 뿌리고 뿌리는 데 사용되는 식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그는 대체 제물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피를 통해 자신의 끔찍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사진을 봐주세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았던 유일한 인간입니다.

나는 내 죄로 붉게 물든 반대편에 있습니다.

죄의 열룩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수치가 예수님께 옮겨질 때 그분의 거룩함과 존귀도 우리에게 옮겨집니다.

우리는 청의의 선물을 받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청의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더욱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화에 참여하지만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성화를 구하는 10-12절을 나와 함께 다시 보십시오.

10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아니면 내게서 당신의 성령을 거두십시오.

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 이러한 일을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만들다”는 히브리어 “bārā”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설명합니다.

같은 동사가 창세기 1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데이비드의 마음은 수리하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악하고 죄의 유혹을 받고 있음을 압니다.

그는 죄를 저항할 "견고한 영"을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야 새로운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 4절, 5절에서 이 거듭남에 대해 설명합니다.

“1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고...

4 공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며 영적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우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8-10에서 정체성과 실천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합니다.

8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라”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고 우리의 성화를 추구하며 성령 안에서 행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 삶에서 성화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친구 Cindy는 최근 중국에 있는 그녀의 엄마를 만나러 갔다.

Cindy의 엄마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어서 기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도착했을 때 딸 신디를 알아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자 Cindy의 엄마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막내아들 같으면서도 달라보여.

당신은 내 막내보다 훨씬 더 인내심이 강해요.”

Cindy는 자신이 같은 딸이라고 엄마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성화의 결과가 신디의 삶에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정의와 성화의 순서를 뒤바꾸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해합니다.

성화를 먼저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치에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잘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점진적인 거룩함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백을 선언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구세주 예수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다윗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만 자신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51편 14절을 보십시오.

14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피를 흘린 다윗을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리자의 피를 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희생을 위한 어린양을 준비하실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한 마음과 회개를 주실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17절에서 봅니다.

17 하나님이여 나의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부서지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여, 당신은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실패에 대해 마음이 상한 나의 좋은 친구와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우울했고 후회와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너무 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시하고 배척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니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부서진 곳은 당신이 있는 곳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 죄는 나쁘고 우리는 나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결백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3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들어보십시오.

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및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어 단어는 "거룩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의롭다 함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은 모든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보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의롭게 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6:18-20을 들어보십시오.

18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느니라

그러나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 죄를 짓습니다.

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20은 값으로 산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그가 "성도"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때때로 옳은 일을 하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의 기쁨과 평안은 우리 삶에서 죄의 권세와 계속 싸울 수 있는 희망을 줍니다.

이 남자, 노금석 노금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No는 한국 전쟁 당시 북한 공군 중위였습니다.

1953년 그는 자신의 전투기를 타고 남한의 미 공군 기지로 날아가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다.

미국은 그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그를 인터뷰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과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미국에 거주할 수 있었고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의 경험은 그와 비슷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왕국의 시민이 되지만 새로운 가정의 가치와 관행을 흡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No가 왕국을 바꾸었을 때 그의 삶에 대한 몇 가지 외적인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름을 **Kenneth Rowe**로 변경했습니다.

그는 플로리다로 이주하여 지난 12월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노씨가 미국에 왔다고 바로 바뀌지는 않았다.

그는 자유 민주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처럼 즉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고 방식과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우리 삶의 성화 사역에 헌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에 따라 사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 것을 요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수치가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의 기록을 받았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의롭다고 결백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죄를 짓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걸을 때 우리는 유혹에 대해 거절하고 거룩함에 대해 예라고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우리는 감사와 희망으로 받을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당신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환영하시고 우리가 부끄러운 기록을 가지고 당신에게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치와 실패를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존귀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칭의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답게 살게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좀 더 예수님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ne Voice Fellowship